

“피네간의 앨리스” 혹은 “앨리스의 경야”: 루이스 캐롤을 통하여 읽는 『피네간의 경야』*

김 경 숙

I. 들어가며

비평가 애서튼(James S. Atherton)은 『경야의 책들: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에 나타난 문학 인용에 대한 연구』(*The Books at the Wake: A Study of Literary Allusions in James Joyce's Finnegans Wake*)의 다섯 번째 장에서 조이스(James Joyce)가 루이스 캐롤(Lewis Carroll)에게서 받았을지 모를 영향을 논의하며, 이 장에 「루이스 캐롤: 예상 밖의 선도자」(Lewis Carroll: The Unforeseen Precursor)라는 제목을 붙였다. 애서튼은 “예상 밖”(unforeseen)이라는 형용사를 선택함으로써 조이스 문학세계에 있어서 캐롤의 영향이 갖는 예기치 못한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비평가 패터슨(Gary H. Paterson) 역시 자신의 논문 「스티븐과 앨리스: 그리 낮설지 않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40300).

은 악당들」(Stephen and Alice: Not so Strange Badfellows)에서 조이스가 루이스 캐롤에게서 영향을 받았을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두 작가 사이의 유사성을 분석한 바 있다. 물론, 논문 제목의 “악당들”(badfellows)은 “흔히 예상 밖의 연관성을 갖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bedfellows”에 대한 조이스/캐롤 식의 언어유희를 모방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패터슨은 위의 논문에서 조이스와 캐롤 두 작가 모두 언어유희에 심취해 있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조이스가 『경야』를 집필할 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루이스 캐롤을 알게 된 것은—혹은 루이스 캐롤의 존재를 언급한 것은—믿기 어려운 일이라 언급한다. 조이스의 문학을 연구함에 있어 작품의 집필의도 혹은 의미의 사각지대를 밝히는 역할을 해 온 조이스의 편지에 있어서 캐롤에 대한 언급은 매우 드물다.

나[조이스]는 ‘앨리스’의 작가에 대한 책을 읽고 있다. 그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은 꽤 흥미롭다. 그는 워링턴(데어스베리)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고, 그는 매우 심한 말더듬이였으며, 트리스탄[트리스탄 차라]과 스위프트[조나단 스위프트]처럼 자신의 이름을 바꾸었다. 그의 이름은 찰스 루트위지였는데 이를 가지고 루이스(다시 말해 루드위그) 캐롤(다시 말해 카롤러스)을 만들었다.

I have been reading about the author of ‘Alice.’ A few things about him are rather curious. He was born a few miles from Warrington (Daresbury), and he had a strong stutter and when he wrote he inverted his name like Tristan [Tristan Tzara] and Swift [Jonathan Swift]. His name was Charles Lutwidge of which he made Lewis (i. e. Ludwig) Carroll (i. e. Carolus). (Letters III 174)

위의 편지에서 조이스는 캐롤이 “찰스 루트위지”(Charles Lutwidge)라는 본명의 성과 이름의 순서를 뒤바꾸어 “루이스 캐롤”(Lewis Carroll)이라는 필명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그가 심한 말더듬이였다는 사실¹⁾ 등 비교적 소

1) 『경야』의 주인공 HCE 역시 말더듬이로 등장한다. 1권 8장의 빨래터 여인들은

소한 사실들만을 언급하고 있다. 『경야』 텍스트의 많은 부분에 존재하는 『앨리스』에 대한 수많은 인유와 『경야』식 언어실험의 근본원리라 할 수 있을 “재버윅키”(Jabberwocky)식 언어유희는 조이스가 캐롤에게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하고 있는 데 반해, 이에 대한 조이스의 언급은 매우 인색하다.

그리고 조이스가 캐롤로부터 받은 영향을 분석하는 비평은 더더욱 인색하다. 애서튼의 연구서 『경야의 책들』은 『경야』가 성경, 코란, 이집트 신화,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 루이스 캐롤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집필된 텍스트임을 밝히며, 『경야』에서 캐롤과 앨리스가 언급된 대목을 인용함으로써 조이스가 이집트 신화와 루이스 캐롤에게서 받은 영향이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주장한다(132). 그러나 그의 연구는 『경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른 많은 작가와 작품들을 두루 소개하는 연구서로서 의미를 가질 뿐, 조이스가 캐롤에게 받은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거나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패터슨의 논문은 “어린 반항자의 초상”(a portrait of the child as a young rebel, 60)을 중심으로 스티븐(Stephen Dedalus)과 앨리스(Alice)를 비교한 연구로, 정작 앨리스와 캐롤에 대한 인유가 다수 포함된 『경야』를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이스가 루이스 캐롤로부터 받은 영향과 『경야』와 『앨리스』 시리즈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텍스트성을 통하여 『경야』를 분석하고자 한다. 언어실험과 언어유희, 소아성애자라는 별명이 붙은 독특한 성적 취향, 그리고 넌센스 세계의 상상을 통한 질서 전복 등 여러 측면에서 캐롤은 조이스에게 흥미로운 선배작가였음에 분명하며, 이를 통해 조이스의 문학, 특히 『경야』를 분석할 수 있는 여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육화로 기능하는 “애나”(Anna Livia Plurabelle) ALP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와 『거울 나라의 앨리스』(*Through the Looking-Glass and What*

그에 대해 “doubling stutter”(197.5)라 일컫는다.

Alice Found There)의 주인공이자 두 작품의 뮤즈 역할을 한 “앨리스”(Alice Pleasance Liddell) APL은 서로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셜(Shem)과 숀(Shaun)을 위시하여 형제간의 경쟁과 갈등을 다루는 『경야』에는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여 티격태격하는 트위들(Tweedle) 쌍둥이에 대한 언급 또한 다수 등장한다(“from tweedledeedumms down to twiddledeedees,” *FW* 258.24).

요컨대, 본 논문은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미친 문학적 유산과 영향이 조이스의 『경야』 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하나의 맥락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경야』를 분석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II.1 캐롤과 조이스에 대한 선행연구

애서튼은 조이스와 캐롤 모두 독창적인 문학을 추구한 예술가로서의 공통점을 지적하며, 조이스의 문학—특히 『경야』의 경우—이 갖는 실험정신은 “루이스 캐롤이 먼저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124)이라 주장하며 두 작가를 가계도로 연결한다. 더 나아가서, 애서튼은 대중들의 보편적인 기호를 넘어서서 실험적인 소설을 쓴 작가라는 측면에서 조이스와 캐롤이 공동의 운명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조이스는 『경야』 집필 당시 자신의 상황과 『실비와 브루노』 집필 당시 캐롤의 상황 사이의 유사성을 즉시 알아봤음에 분명하다. 그리고 캐롤에 대한 공격은 조이스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됨에 분명하다. 비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조이스는 캐롤을 자신의 또 다른 육화로 간주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캐롤에 대한 그의 언급은 유머러스한 공감의 색채를 띤다.

Joyce must have seen at once a similarity between his own situation, when

writing the *Wake*, and Carroll's when writing *Sylvie and Bruno*; and what may seem to be his attacks on Carroll must also be considered as attacks upon Joyce by himself. It may even be true to say that from the Victorian standpoint Joyce regarded Carroll as another incarnation of himself. Certainly his remarks about Carroll are tinged with humorous sympathy. (Atherton 135)

기존 문학의 지평을 넘어서서, 현실과 환상의 차원을 경계 없이 넘나드는 『실비와 브루노』(*Sylvie and Bruno*)와 40여개의 언어를 뒤섞어 새로운 언어로 쓰인 『경야』가 당대의 독자와 비평가들에게 안겨준 충격과 당혹감은 두 작가를 동일선상에 놓기에 충분토록 유사하다. 그리고 애서튼의 주장대로, 조이스는 작가로서 캐롤과 비슷한 운명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브라스라수(Viviana Mirela Braslasu) 역시 자신의 논문 「‘이런, J씨와 그의 신만이 알고 있겠지!’: 조이스와 루이스 캐롤」(“Why, Mr. J. and his God alone know!?: Joyce and Lewis Carroll”)에서 비록 조이스가 겉으로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캐롤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제시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추정컨대, 조이스는 루이스 캐롤에 대해 상당 부분 알고 있었다, 비록 그[조이스]가 왜 ‘그[캐롤]의 글을 읽은 적이 없다’고 썼는지 ‘그의 신’만이 알고 있겠지만 말이다”(115). 또한 비평가 브라스라수는 비록 현재 노트가 현존하고 있지 않지만 조이스가 1923년 ‘암탉’(The Hen) 부분(*FW* 104-25)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상한 나라와 집에서의 루이스 캐롤』(*Lewis Carroll in Wonderland and at Home*)에서 인용한 구절들을 자신의 노트에 메모해두었다고 지적하며, 조이스가 『경야』를 쓰면서 캐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주장한다(115).

조이스가 그의 오랜 지인 실비아 비치(Sylvia Beach)에게 보낸 그림엽서 뒷면에 쓴 다음의 내용은 이러한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친애하는 비치양에게

기차에서 루이스 캐롤의 수수께끼를 풀었소. 한 러시아인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소. 첫째 아들의 이름은 R A B로 법률가가 되었소. 이름이 Y M R A인 둘째 아들은 육군 병사가 되었소. 셋째 아들은 수병이 되었소. 그의 이름은 무엇이였을까. 정답은 Y V A N. 이름을 모두 거꾸로 읽어보면, 당신은 이해할거요.

애정을 듬뿍 담아

J.J.

Dear Miss Beach

Solved Lewis Carroll riddle in train. A Russian had 3 sons. The 1st named R A B became a lawyer. The 2nd named Y M R A, became a soldier. The 3rd became a sailor. What was his name. The answer is Y V A N. Read the names backward and you will see.

Kindest regards

J.J. (*James Joyce's Letters to Sylvia Beach 1921-1940*, 135)

조이스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캐롤이 1882년 6월 30일 자신의 일기에 남긴 수수께끼인데, 세 아들의 이름을 거꾸로 읽으면 답이 나온다. 캐롤의 두 번째 작품인 『거울나라』 자체가 거울을 통해 비치는 사물의 반대상과 움직임의 반대 방향에 대한 언급을 술하게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캐롤이 정상적인 질서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었음에 분명하며 이런 점에서 조이스와 매우 큰 유사성을 지닌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예민한 감각과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질서에 대한 의구심을 지닌 조이스에게 있어서 위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조이스는 『경야』의 한 대목에서 “거울”(looking glass)을 “웃음 교실”(laughing classes)로 바꾸는 말장난을 하며, 앨리스 이름을 거꾸로 언급한 바 있다 (“Secilas through their laughing classes”[FW 526.35-6]).²⁾

2) 비평가 겔라쉬빌리(Tamar Gelashvili)는 유사한 맥락에서 조이스와 캐롤 두 작가 모두 거울에 비춘 듯 글자를 거꾸로 읽는 것에 심취해 있었음을 지적한다: “Another innovation that Lewis Carroll used was reading some words backwards; one example of this could be Bruno’s words that Evil is the same as Live (Evil

비평가 데미(Nicholas G. Demy) 역시 자신의 논문 「그건 꿈이야!」(It's a Dream!)에서 루이스 캐롤에게서 조이스가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단언한다.

제임스 조이스는 캐롤에게서 의심할 바 없이 영향을 받았다. 우리는 「나는 대리석 궁전에서 사는 꿈을 꾸었어요」에 대한 캐롤의 패러디에 대한 패러디를 『피네간의 경야』에서 발견한다 [. . .] 조이스가 음절들을 혼합하여 ‘용해질’로 만드는 방식은 예를 들자면 재버위키에서의 캐롤의 혼성어 어휘들만큼 절묘하지는 않다; 우리는 캐롤의 작품보다 더 심하게 엉킨 의미의 타래를 조이스의 작품에서 풀어내야 한다. 마치 조이스가 ‘다원성을 가져오는 자’인 애나 리비아 플루라벨(ALP)을 용의 꿈의 ‘애니마/애니머스’의 여성 원칙인 ‘애니마’로 언급했던 것처럼 말이다.

James Joyce was undoubtedly influenced by Carroll. In *Finnegans Wake*, we find a parody of Carroll's parody of “I dreamt I dwelt in marble halls” [. . .] Joyce's melding of syllables into “solubles” is not so felicitous as Carroll's portmanteau words in the *Jabberwocky* for instance; we have to unravel a more tangled skein of meaning in Joyce than in Carroll, as when Joyce refers to Anna Livia Plurabelle (ALP)—that “bringer of plurabilities”—as “annyma”—the female principle in Jung's dream “anima/animus.” (65)

데미는 조이스가 캐롤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캐롤의 언어실험의 수위를 초월하는 조이스의 ‘재버위키’식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캐롤의 작품보다 더 심하게 엉킨 의미의 타래를” 풀어냄으로써 조이스의 언어실험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ad backwards gives us Live and vice versa) (Carroll, *Sylvie* 529). Noteworthy is that allusion to this passage from *Sylvie and Bruno* can be found in *Finnegans Wake*, when Joyce writes “Evil-it-is, lord of loaves in Amongded” (*FW* 418:6). We can argue that one of the reasons, why Joyce was so interested in anagrams, was that it can be an allusion to the mirror, where the written word alters and changes” (48).

겔라쉬빌리(Tamar Gelashvili)의 연구 「제임스 조이스의 『경야』에 나타난 루이스 캐롤에 대한 인유」(“Allusions on Lewis Carroll in James Joyce’s *Finnegans Wake*”)에 따르면 조이스는 언어실험의 문학가로서가 아니라 소녀 친구들을 가진 특이한 취향의 소유자로서 루이스 캐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캐롤은 자신의 소녀 친구들 가운데 앨리스(Alice Liddell)와 이사(Isa Bowman)에 대해 특히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이 두 인물은 『경야』의 많은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다. 조이스는 1898년에 출판된 콜링우드(Stuart Dodgson Collingwood)의 저서 『루이스 캐롤의 삶과 편지』(*The Life and Letters of Lewis Carroll*)를 통해 캐롤의 삶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Atherton 129). 이렇게 접하게 된 캐롤의 성적 취향은 『경야』 속에 주인공 HCE의 모습 속에 투영된다. 한 번도 정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지만, HCE가 공원에서 소녀들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성추행은 캐롤과 앨리스 사이의 관계 즉, “늙은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어린 소녀에게 저지른 성적 타락과 죄”를 연상시킨다(Mays 31).

앨리스 이후 캐롤에게 최고의 어린 친구는 연극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 역을 맡은 여배우 이사 보우맨(Isa Bowman)인데, 휴 케너(Hugh Kenner)에 따르면 이사 보우맨에 대한 캐롤/다지슨의 양가적 관계는 『경야』에서 딸 이졸트(Iseult)를 향한 HCE의 근친상간적 욕망을 상기시킨다: “조이스는 HCE와 그의 딸 이졸트와의 근친상간적 사랑의 열병을 표현함에 있어, 이사와 다지슨과의 애증의 관계를 거의 그대로 『경야』에 끌어왔다. 그것은 사실 상징적인 차원의 근친상간의 관계였다. 다지슨은 이사에게서 육화된 앨리스를 보았고, 앨리스는 그 자신의 창조물이었다”(Kenner 288).³⁾

3) 이사 보우맨의 존재를 조이스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1931년부터 써 온 조이스의 노트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벌벌 떨 만큼 선량한 사람이 되다”(be good enough to tremble)라는 특정 표현은 캐롤에 대하여 쓴 이사 보우맨의 책에 그대로 등장한다: “오, 이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못되고 사악한 계집애! 네가 보낸 편지에 우표를 붙이는 걸 잊고, 너의 불쌍한 늙은 삼촌이 2펜스나 지불하게 하다니! 내 마지막 2펜스! 생각 좀 해봐. 여기 오기만 해봐라, 이 일에

지금까지 조이스와 캐롤 사이의 영향 관계를 파악한 비평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십계도 이들 논문 대부분은 조이스가 캐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작업은 『경야』의 집필 과정 속에서 조이스가 캐롤에게서 받은 영향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며, 이를 통하여 『경야』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일 것이다.

II.2 『경야』 속 캐롤과 앨리스

『경야』에는 캐롤과 앨리스를 상기시키는 대목들이 다수 등장하여, 텍스트를 구성하는 중요한 차원을 이룬다. 특히 주인공 HCE를 캐롤처럼 말더듬이로 설정한 점, 재버위키에서와 같은 혼성어 만들기를 텍스트 구성 원리로 채택한 점, 『거울나라』에서 구석에서 잠든 레드 킹(Red King)의 모습을 통하여 텍스트 전체가 누군가의 꿈이라는 사실을 암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캐롤의 『앨리스』 시리즈를 『경야』를 구성한 주요 맥락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야』 텍스트 도처에서 조이스는 캐롤/도지슨을 대놓고 언급한다.

To tell how your mead of, mard, is made of. All old Dadgerson's dodges one conning one's copying and that's what wonderland's wanderlad'll flaunt to the fair. A trancedone boy-script with tittivits by. Ahem. (FW 374.1-4)

위에서 “old Dadgerson”은 캐롤의 본명인 “Charles Lutwidge Dodgson”을, 그리고 “wonderland”는 그의 작품 『이상한 나라』를 뜻한다. 그리고 “wanderlad”는 조국 아일랜드에서도 늘 망명자를 자처한 방랑자(wanderer)

대해 난 널 혹독하게 벌 줄 거야. 그러니 벌벌 떨어! 알아들어? 벌벌 떨 만큼 선량한 사람이 되라고!”(Gelashvili 52).

로서 조이스 자신을, “copying”은 캐롤에게서 조이스가 받은 영향을 암시한다. 그리고 “mead of, mard, is made of” 부분에서 조이스는 철자 하나만을 바꾸며 말장난을 이어가는데, 이는 캐롤이 자신의 작품에서 즐겨 사용했던 언어유희 ‘더블릿’(doublet)의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후 “Dadgerson”과 “dodges,” “conning”과 “copying,” “wonderland”와 “wanderlad,” 그리고 “flaunt”와 “fair”에서도 철자를 조금씩 바꾸어 의미의 균열을 노리는 언어유희가 이어진다. 더블릿은 단어를 각 단계에서 철자 하나씩 바꾸어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으로, 처음과 마지막에 생긴 두 단어는 같은 길이의 단어여야 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위치에 같은 글자가 있어서도 안 된다. 각 단계에서 모든 단어들은 보통 명사여야 하고 고유 명사는 제외된다. 『거울나라』에서 더블릿 기법에 의한 언어유희의 예는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다수이다.

다음으로, “Through Wonderlawn’s lost us forever. Alis, Alas, she broke the glass! Liddell Lokker through the leafery, ours is mistery of pain”(FW 270:19-22) 구절은 직접적으로 『앨리스』 시리즈를 언급하고 있다. “Wonderlawn”은 앨리스가 여행한 “이상한 나라”(wonderland)와 더불어 어린이의 순수함 혹은 태초 인류인 아담과 이브의 에덴동산을 상기시킨다. “Alis, Alas”는 “앨리스”(Alice)의 철자를 바꾸어 언어유희를 벌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도 alas에 대한 말장난(pun)을 하는 비슷한 대목이 있다: “[. . .] alas for poor Alice!”(12). “Liddell”은 앨리스의 성이며 “Lokker”는 이상한 나라와 거울나라를 바라보는 방관자(looker)로서 앨리스를 나타내고, 앨리스가 후속편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울나라”(looking glass)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에덴동산에 대한 인류의 측면에서 본다면 “Wonderlawn’s lost us forever”라는 구절은 이브로서 앨리스가 잃게 되는 순수한 동심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이상한 나라/에덴동산”의 상실은 순수의 상실과 인류의 타락을 뜻하는데, 순수의 상실과 인류의 타락이라는 주제는 소녀 앨리스의 성장을 애잔하게 기록한 캐롤과, 피네간과 HCE의 추락과 죽음을 다루는 조이스 모두에게 핵심 주제

이다. 그리고 “mister,” “mystery” 그리고 “misery”를 합성하여 만든 어휘인 “mistry”는 모든 인간의 행위가 신비롭지만 궁극적으로는 불행을 향하고 있음을 내비친다.

특히 “Alis, Alas, she broke the glass!” 구절은 “Alice”의 이름이 거의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며, 거울을 깨는 행위는 동시에 『율리시스』에서 스티븐이 밝히는 아일랜드의 예술에 대한 메타포—하녀의 깨진 거울—를 상기시키기도 한다(“It is a symbol of Irish art. The cracked lookingglass of a servant,” *U* 1.146). 실제로 앨리스의 이름은 여러 형태로 『경야』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He addle liddle phifie Annie ugged the little craythur”(FW 4:28)와 같은 대목은 캐롤과 앨리스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내비치기도 한다. 기상천외한 환상소설의 작가로서 루이스 캐롤을 생각하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지만, 영국국교회 사제로서의 찰스 루트위지 다지슨을 생각하면 획기적인 사건이라 하겠다. 이러한 성도착증은 『율리시스』의 블룸(Leopold Bloom) 그리고 『경야』의 HCE와 연결된다.

캐롤의 거주지였던 Christ Church의 Tom Quad를 언급하는 다음 부분도 명백히 캐롤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음에 분명하다.

And there many have paused before that exposure of him by old Tom Quad, a flashback in which he sits sated, gowndabout, in clerical-ease habit, watching bland sol slithe dodgsomely into the nethermore, a globule of maugdleness about to corrugitate his mild dewed cheek and the tata of a tiny victorienne, Alys, pressed by his limper looser. (FW 57.23-29)

위에서 “slithe, dodgsomely, Alys” 등의 어휘들은 캐롤을 암시한다. 먼저 “slithe”는 slimy와 lithe의 합성어로 “재버취키”를 풀이하면서 험티 덤티가 가장 먼저 예로 들었던 어휘이다. 그리고 “dodgsomely”는 캐롤의 본명인 “Dodgeson”에 대한 말장난이고, “Alys”는 “작은 빅토리아 꼬마”(tiny victorienne)인 “앨리스”(Alice)와 “alas”에 대한 스펠링 조작으로 볼 수 있다. 또한, tata는 어린이의 작별 제스처 혹은 여성 말더듬이를 뜻한다. 그리

고, exposure와 flashback은 사진을 의미하는데, 여아 사진 촬영은 캐롤의 잘 알려진 취미이며 엘리스 리델 역시 캐롤의 사진 모델이었다.

이렇듯 『경야』에서의 캐롤에 대한 언급은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캐롤과 다지슨을 구분하지 않고, 『경야』 텍스트 도처에 골고루 흩뿌려져 있다.

Tal the tem of the tumulum (56.34) - Atem은 이집트 신으로서 창조주에 캐롤 비유, tumultum은 mud heap 의미

oddrabbit (366.18) - 『이상한 나라』에 등장하는 흰 토끼

white kidloves (205.18) - 흰 토끼가 떨어뜨린 장갑

mitsch for matsch (366.13) - 캐롤이 가족들을 위해 만든 잡지 『미쉬매 쉬』(Mischmasch)

Poor Isa sits a glooming so gleaming in the gloaming.. Woefear gleam she so glooming, this pooripathete I solde? Her beauman's gone of a cool (226.4) - 이사 보우맨에 대한 언급

So long as beauty life is body love and so bright as Mutua of your mirror holds her candle to your caudle, lone lefthand likeless, sombring Autum of your Spring, rick you not one spirt of anyseed (271.9-13) - 거울소녀는 왼손잡이와 연결되고 Atem과 연결

Whiest night ever mortal saw (501.31) - 백기사(White knight) 언급

Lewd's carol! Hatter's hares (83.1) - 루이스 캐롤, 모자장수, 3월토끼 언급

the liddel oud oddity (207.26) - 비정상적인 ALP를 엘리스에 빗대어 표현 loose carolleries (294.7) - 캐롤 언급

Muckstails turtles (393.11) - 모조거북 언급

Stew of the evening, booksyful strew (268.14) - 모조거북이 인용하는 시 언급

Humps when you hised us and dumps when you doused us! (624.13) - 험티 덤티 언급

Alicious, twinstreams twinestraines, through alluring glass or alas in jumboland? (528.17) - 엘리스 언급

Alesse, the lags of girly days! . . . Wasut? Izod? (203.8) - 엘리스 언급

Onzel grootvatter Ldewijk is onangonamed . . . and his twy Isas Boldmans

is met the blueybells near Dandeliond. We think it's a gorsedd shame, these godoms (361.21) - “Isas Boldmans”에서 이사 보우맨 언급, 그리고 “Lodewijk”은 네덜란드말로 Lewis

이외에도 앨리스에게 선물을 주는 공작부인의 모습은 『경야』 1권 8장에서 손의 가방 속에 온갖 선물을 넣고 배달하는 ALP를 닮았다. “오, 수고로움에 대해선 말도 마!” 공작부인은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걸 너에게 선물로 줄게’”(AW 135). 이 공작부인은 “돼지가 날아야 한다는 것만큼 딱 그만큼 옳은 일”(AW 135)이라고 언급하는데 이와 유사한 표현이 『경야』 1권 8장에 다시 등장한다. “Down to what made the potters fly into jagsthole”(FW 201.22-23).

캐롤이 『거울나라』에서 거울에 비친 사물의 반대상을 통하여 방향과 시간의 흐름의 전복을 보여준다면, 조이스는 『경야』 1권 8장에 등장하는 “Reeve Gootch was right and Reeve Drughad was sinistrous!”(FW 197.1) 구절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경계를 과감하게 지운다. “Reeve”에는 ‘강둑’을 뜻하는 불어 ‘rive’와 ‘지방행정관’을 뜻하는 영어 ‘reeve’가 섞여 있는데, 거칠게나마 해석을 한다면 “왼쪽 강둑/좋은 집행리는 오른쪽이고/옳고, 오른쪽 강둑/나쁜 집행리는 왼쪽이다/사악하다!” 비슷한 듯 서로 다른 두 인물인 셜과 손 그리고 트위들디(Tweedledee)와 트위들덤(Tweedledum) 사이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듯 오른쪽과 왼쪽의 구분과 같은 이항대립이나 선악이분법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 『실비와 브루노』에 등장하는 신조어 “Litterature”(문학/쓰레기)는 문학(literature)과 쓰레기(litter)의 합성어로서 쓰레기 같은 잡문나부랭이로서의 문학을 뜻하는 자조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조이스 역시 셜의 편지를 셜의 분비물을 잉크 삼아 쓰고 이를 두 엄 더미 속에서 파헤치도록 함으로써 문학과 쓰레기의 구분을 흐릿하게 만든다.⁴⁾ 실제 조이스는 『피네간의 경야』 텍스트에서 편지 혹은 철자/문

4) 비평가 휘틀리(Catherine Whitley)는 자신의 논문 「나라와 밤: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와 주나 반즈의 『야목』에 나타난 배설의 역사」(“Nations and Night: Excremental History in James Joyce’s *Finnegans Wake* and Djuna Barnes’

학을 쓰레기와 동일시한다(“The letter! The litter!”[FW 93.24]). HCE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암탐 비디가 두엄 더미를 쪼아대며 찾아 헤매는 편지(letter)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갖 언어를 조합하여 만들고자 했던 『피네간의 경야』 식의 철자(letter)는 서로 일맥상통하며, 영국제국의 언어로서 영어가 갖는 권위를 철저히 허문다.

II.3 『경야』와 재버위키

비평가 케인(Richard M. Kain)은 에클리(Grace Eckley)의 『“피네간의 경야”에 나타난 아동설화』(*Children's Lore in “Finnegans Wake”*)에 대한 서평에서 『경야』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재버위키”에 대한 앨리스의 반응에 빗대어 표현한 바 있다. “『경야』가 출판된 지 40여 년이 지났는데, 『경야』에 대한 가장 흔한 반응은 ‘재버위키’에 대한 앨리스의 반응과 비슷한 경향이 있다(793). 『거울나라』에서 ‘재버위키’를 읽고 앨리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 하지만—그 생각들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TL 24).

사실 루이스 캐롤이 “재버위키”에서 보여주는 포트망또식 조어는 조이스의 『경야』에서의 언어실험을 예견케 한다. 조이스는 『경야』를 일컬어 “Tis jest jibberweek’s joke”(FW 565.14)라 언급함으로써 캐롤의 “재버위키”에 빗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애서튼은 “조이스가 캐롤에게서 언어적으로 빌려온 것들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혼성어”(126)라고 주장한다. 『거울나라』에서 험티 덤티는 ‘혼성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Slithy”는 ‘lithe와 slimy’를 뜻한다.

Nightwood”)에서 『피네간의 경야』가 역사를 배설물과 쓰레기로 간주한다는 매우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다. “소설 『피네간의 경야』는 암탐 비디가 신비의 편지를 파내는 오물 혹은 두엄덩어리 그리고 편지 그 자체와 유사성을 갖는다”(93).

‘Lithe’는 ‘활기차다’는 뜻이란다. 마치 여행가방 같다는 걸 너도 알테지— 하나의 단어 속에 두 개의 의미가 꾸려져 있으니”(TL 126-27). 물론 조이스는 단순히 두 개의 의미를 하나의 단어 속에 넣는 데 만족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의미를 하나의 단어 속에 꾸려 넣으려 했다.

사실 “재버워키”라는 허구의 괴물을 죽이는 내용의 년센스 말장난 시는 1855년부터 1862년까지 캐롤이 자신의 가족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미쉬매쉬』(*Mischmasch*)에 먼저 게재되었다. 독일어로 “Mischmasch”는 사물의 엉망진창인 상태를 일컫는 말로 영어단어 “mismatch”에 해당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경야』에 다수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mitsch for matsch”(366.13), “mishmash mastufactured on europe you can read off the tail⁵ of his”(466.12-13), “(msch!msch!) with nurse Madge, my linking class girl”(459.4). 캐롤이 지은 또 다른 년센스 시 “스나크 사냥”(The Hunting of the Snark) 또한 『경야』에 언급된다: “bedattle I did are donit as Cocksna⁶rk”(FW 353.11). 물론 스나크 역시 재버워키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다.

조이스가 등장하기 전 캐롤은 두 어휘를 섞어 새로운 의미의 어휘를 만들어냄으로써 언어유희를 즐기는 유일한 작가였다(Gelashvili 48). 앞에서 언급했듯, 『실비와 브루노』에서 “문학”(literature)은 철자 t를 하나 더 보탬으로써 쓰레기와 문학의 합성어인 “잡문”(litterature, Carroll, *Sylvie* 278)이 된다. 조이스도 이와 유사한 언어실험 작업을 많이 하였는데 애서튼이 가장 대표적이라 지적하는 사례는 “Healiopolis”(FW 14.18)이다. 여기서 조이스는 Anu의 그리스어이름인 “헬리오폴리스”(Heliopolis)와 아일랜드의 정치가인 “팀 힐리”(Time Healy)의 이름에 철자 a를 더하여 조합함으로써 이집트와 더블린을 합성한 것이다.

그리고 혼성어의 정의를 제공한 험티 덤티는 『경야』에도 중요하게 등장한다. 『거울나라』에서의 험티 덤티가 언어학자, 혹은 언어실험에 심취

5) ‘이야기’(tale)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꼬리’(tail)를 넣는 재기 넘치는 언어유희는 캐롤의 『이상한 나라』에도 등장한다(AW 36).

한 기묘한 작가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경야』에 나타난 험티 덤티는 담장에서 추락하여 깨진 계란의 모습으로 인류의 타락과 죄의식을 다루는 작품의 의도를 십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계란이기에 부활절의 상징이기도 하다(Atherton 126). 이런 의미에서 험티 덤티는 죄를 저지른 HCE이기도 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팀 피네건(Tim Finnegan)이기도 하다. 또한 우주가 다시 그 존재를 시작한다는 고대 이집트의 믿음의 중심에 있는 고대 이집트의 우주적 계란을 의미하기도 한다: “The Great Cackler comes again”(FW 237.34).

결국 캐롤과 조이스의 가장 큰 공통점은 표준화되고 규범화된 영어의 사용에 대한 경멸과 환멸일 것이다. 두 작가 모두 즐겁게 몰두했었던 동음이의어(pun)를 활용한 말장난과 관용적인 의미를 피하고 직설적인 의미를 활용한 언어유희가 뜻하는 것이 바로 그러할 것이다. 『피네건의 경야』에서 조이스는 엄격한 문법준수에 대해 경멸을 표한다.

Let us now, weather, health, dangers, public orders and other circumstances permitting, of perfectly convenient, if you police, after you, policepolice, pardoning me in, ich beam so frisch, bey? drop this jiggerypokery and talk straight [. . .] (FW 113.23-26)

위에서 조이스는 영어뿐 아니라 독일어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mein, ich beam[bin], frisch”) “똑바로 말하지”(talk straight) 않고 있다. 그리고 특히 please가 예상되는 자리에 police를 넣음으로써(“if you police”) 표준어로서의 영어가 휘두르는 통제력을 경찰력에 비유하고 영어의 권위를 조롱한다.

III. 결론

비평가 켈라쉬빌리는 조이스가 캐롤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단순히 언

어유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라 단언한다. “조이스는 루이스 캐롤에게 특히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꿈의 나라 사람들의 무의식을 탐험한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루이스 캐롤은 꿈을 꾸는 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꿈속에서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변경되고, 서로 합류하고 심지어 꿈꾸는 자의 개성 자체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문제에 흥미를 갖고 있었다”(50). 애서튼 역시 캐롤이 꿈 상태를 문학화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임을 알아본 최초의 작가, 즉, 루이스 캐롤의 진가를 알아본 최초의 작가는 조이스라고 주장한다(128).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꿈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지만 캐롤의 텍스트는 다른 어떤 문학 작품보다도 빅토리아 당대의 모습을 리얼하게 비추준다는 사실이다. 조이스가 출판사에 보낸 편지에서 “아일랜드 도덕사의 한 챕터를 쓰겠다”고 밝혔듯 『더블린 사람들』의 집필 의도는 매우 유명하다. 『더블린 사람들』에서는 아직 19세기식 리얼리즘의 잔재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조이스는 자신의 예술을 통하여 사회의 추악하고 부패한 면들을 그대로 비추는 것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율리시스』에서는 “하녀의 깨진 거울”이라는 새로운 메타포를 통하여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녀 신세로 전락한 식민 현실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비추는 예술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조이스는 ‘거울’의 메타포에 천착하였다. 마찬가지로 루이스 캐롤은 『거울나라』를 통하여 현실을 뒤집고 논리를 비논리로 대체하는 또 다른 차원의 가능성을 제시함에 있어 ‘거울’을 매개체로 택하였다.

결론적으로, 루이스 캐롤과 그의 문학은 『경야』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거울을 제시해 준다. 이 거울을 통해 독자는 조이스 문학에서의 언어실험이 갖는 사회비판적 함의를 이해함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양대)

인용문헌

- Atherton, James S. *The Books at the Wake: A Study of Literary Allusions in James Joyce's Finnegans Wake*. Viking Press, 1959.
- Attridge, Derek. "Finnegans Awake: The Dream of Interpretation." *JJQ*, vol. 50, 2013, pp. 185-202.
- Braslasu, Viviana Mirela. "'Why, Mr. J. and his God alone know!': Joyce and Lewis Carroll." *Dublin James Joyce Journal*, vol. 8, 2015, pp. 113-21.
- Carroll, Lewis.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Macmillan, 1865.
- . *Sylvie and Bruno*. Macmillan, 1893.
- . *Through the Looking-Glass, and What Alice Found There*. Macmillan, 1872.
- Demy, Nicholas G. "It's a Dream!" *The Kenyon Review*, vol. 9, 1987, pp. 65-73.
- Gelashvili, Tamar. "Allusions on Lewis Carroll in James Joyce's *Finnegans Wake*." *Impact Journals*, vol. 4, 2016, pp. 47-54.
- Hart, Clive. *Structure and Motif in "Finnegans Wake"*. Faber and Faber, 1962.
- Hennelly, Jr. Mark M. "Alice's Adventures at the Carnival." *Victorian Literature and Culture*, vol. 37, 2009, pp. 103-28.
- Joyce, James. *Finnegans Wake*. Viking, 1939.
- . *James Joyce's Letters to Sylvia Beach, 1921-1940*, edited by Melissa Banta and Oscar Silverman, Indiana UP, 1987.
- . *Selected Letters*, edited by Richard Ellmann, Faber and Faber, 1975.
- . *Ulysses*,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et al, Vintage, 1986.
- Kain, Richard M. "Children's Lore in 'Finnegans Wake' (review)." *Modern Fiction Studies*, vol. 31, 1985, pp. 789-93.
- Kenner, Hugh. *Dublin's Joyce*. Columbia UP, 1956.
- Mays, Michael. "*Finnegans Wake*, Colonial Nonsense, and Postcolonial

History.” *College Literature*, vol. 25, 1998, pp. 20-34.

Norris, Margot. “Possible Worlds Theory and the Fantasy Universe of *Finnegans Wake*.” *JJQ*, vol. 50, 2012, pp. 413-32.

Paterson, Gary H. “Stephen and Alice: Not so Strange Badfellows.” *Interpretations*, vol. 15, 1983, pp. 60-69.

Whitley, Catherine. “Nations and the Night: Excremental History in James Joyce’s *Finnegans Wake* and Djuna Barnes’ *Nightwood*.”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vol. 24, 2000, pp. 81-98.

Wilson, Edmund. “The Dream of H. C. Earwicker.” *The Wound and the Bow: Seven Studies in Literature*. Oxford UP, 1959.

Abstract

“*Finnegan’s Alice*” or “*Alice’s Wake*”: Reading *Finnegans Wake* through Lewis Carroll

Kyoungsook Kim

This essay aims at exploring the traces of influence that Lewis Carroll must have shed on James Joyce, focusing on intertextuality between *Finnegans Wake* and *Through the Lookingglass and What Alice Found there*. ALP (Anna Livia Plurabelle) reminds readers of Alice Pleasance Liddell, the muse of Carroll. The sibling rival between Shem and Shaun resembles the twins Tweedle Dee and Tweedle Dum. Above all, “Jabberwocky,” a full-blown wordplay poem of portmanteau, anticipates Joyce’s language experimentation in the *Wake*. In this way, there exists a cascade of textual evidence to refer to both *Alice in Wonderland* and *Through the Lookingglass and What Alice Found There* in reinterpreting Joyce’s *Finnegans Wake*. Through language experimentation within the frame of dream and fantasy, both Joyce and Carroll reconfigure the fixed reality of Irish colonial and Victorian prudish society, respectively.

■ Key words : *Finnegans Wake*, Lewis Carroll, *Alice in Wonderland*, *Through the Looking-Glass*, *Jabberwocky*
(『피네간의 경야』,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울 나라의 앨리스』, 재버위키)

논문접수: 2021년 5월 10일

논문심사: 2021년 5월 26일

게재확정: 2021년 5월 30일